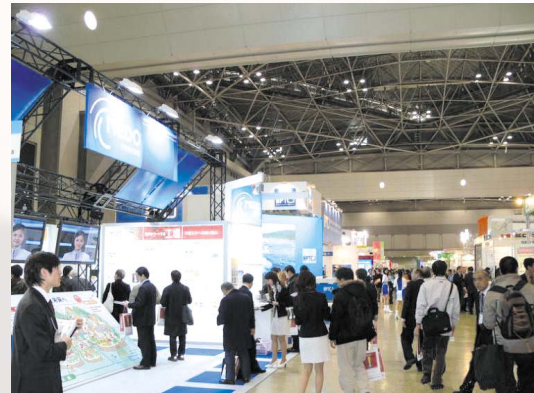


일본 ENEX 2007

- 121개사 출품, 아시아ESCO협회 회의도 열려



일 본의 (재)성에너지센터가 주관하는 '제31회 지구환경과 에너지의 조화전'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 동안 동경의 빅사이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총 121개사가 출품하여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를 주제로 최신의 기술과 시스템을 선보였다.

전시장은 산업과 비즈니스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솔루션존'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테마로 한 '스마트라이프엑스포존' 2가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에너지솔루션존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솔루션을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고 전시장을 꾸몄다.

한편 (사)한국ESCO협회(회장 유제인)가 패널로 참여한 '아시아 ESCO협회 네트워크(AEA-Net) 미팅 어젠다'가 부대행사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일본의 ESCO추진협회의회가 주관하였으며 중국의 EMCA, 태국의 DEDE, 인도의 ICPEEB, 대만의 TAESCO, 미국 NAESCO, 오스트레일리아 AEPCA, 필리핀 ESCOPHIL, 말레이시아 MAESCO, 그리고 우리나라 ESCO협회가 참석했다.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각국의 ESCO협회와 사업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ESCO협회의 국제연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올 10월 11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예정인 제2회 아시아ESCO컨퍼런스에 대한 논의도 나누었다.



또 행사기간 중에 일본 히트펌프·축열센터는 기술보급과 확산을 목적으로 ‘히트펌프·축열보급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멤버로 유명 탤런트를 위촉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개시했다.

히트펌프는 공기 중의 열을 효율 좋게 이동, 활용하는 것으로 공조와 급탕 등을 하는 시스템이다. 업무용 보일러와 가정용 석유팬히터, 가스급탕기와 같은 화석연료사용기기들을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약 1억톤의 CO₂가 절감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방지와 CO₂배출억제를 위해서라도 보급 및 홍보가 절실한 기기. 최근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0.1W/s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

이번 에넥스 전시회에서 JR히가시니혼사는 개찰구를 사용한 발전시스템을 선보였다. 이것은 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압전소자’를 통로에 깔아놓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약 0.1W/Sec의 전기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압전소자는 전기를 진동으로 바꾸는 스피커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실용화에는 발전효율의 비약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JR히가시니혼사는 역 구내의 사용전력 일부를 이 시스템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는 있으나 실용화를 위한 목표는 세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